

KTV

2014년 3월 3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KTV 특집 - 박근혜정부 1년,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		
방송일자	2014. 2. 24. 07:00	시청률	0.028

【총 평】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민 행복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시의적절한 특집기획이 돋보였음.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의 변화를 CHANGE의 영어 이니셜로 풀어간 구성이 참신함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특히, 영문이니셜인 HAPPY, ABILITY, NATION에 포커스를 맞추으로써, 주제인 대한민국 행복 프로젝트를 부각시킨 점이 매우 좋았음.

【구성 및 내용】

<서민경제 지원>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이현숙씨, 네일 숍 운영자 차정귀씨, <국민의 능력발휘 지원> 워킹맘 추정은씨, <의료복지 지원확대> 루푸스 병환자 황혜민씨, <비정상의 정상화> 억울하게 딸을 잃어버린 정현조씨 등 국민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박근혜 정부를 차분한 톤으로 담아낸 이야기 흐름이 공감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음.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2. 24. 17:00	시청률	0.008

【총 평】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파"...업무보고 마무리, 2차 상봉 이틀째...내일 상봉 행사 마무리, 선물 주고받으며 '이야기 꽃' 피워, 정 총리, 소치서 평창올림픽 관심·지원 외교, [라이브 이슈] 2014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대담] 2014 소치동계올림픽 결산 등으로 구성됐음.

【구성 및 내용】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을 깔끔하게 전달했는데 행사에 참가한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잘 전달했음. <라이브이슈>에서는 농림축산부의 올해 농정방향과 업무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2014 소치동계 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식을 가진 가운데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동계올림픽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음. 한국의 올림픽 성적과 스포츠 외교력, 올림픽 이후 빙상연맹에 대한 감사 등 이슈가 되는 내용을 짚어보는 흐름이 집중력 있었음.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2. 25. 10:00	시청률	0.005

【총 평】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어울리는 <메인뉴스> 및 <집중 인터뷰>의 유기적 배치가 눈에 띄었음. 특히 [박근혜정부 1년 뉴스]에 앞서, 온 국민들의 관심사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첫 뉴스에 배치한 순발력 있는 구성이 매우 돋보였음.

【구성 및 내용】

[박근혜 정부 1년 - 변화의 새 바람]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원칙·신뢰의 대북정책, 신뢰외교로 국익 극대화 및 [집중 인터뷰] '박 대통령 취임 1년' 경제혁신 추진 배경 등 주제의 유기적 연계가 눈에 띄었음.

특히, <집중 인터뷰>에서 이석우 시사 평론가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설해 주었음.

【영상】

'박근혜정부 1년...원칙·신뢰의 대북정책', '박근혜정부 1년...신뢰외교로 국익 극대화'에서 지난 해 5월 8일 美 상하원 합동연설, 7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 올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들을 잘 요약해 정리한 영상구성이 돋보였음.

【참고사항】

<여기는 세종>의 경우 '정부 세종청사'에 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코너이므로 이왕이면 [세종청사의 뉴스나 유용한 정보] 등을 대담 전에 미니코너 식으로 배치해 주면 더 좋을 것임.

■ 국민리포트, 안중근 의사 추모 분위기 확산



일본인들의 만행에 맞선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인터뷰이의 '높'이라는 용어사용은 걸러주었다면 좋았을 것임.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2. 25. 18:15	시청률	0.003

【총 평】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한 접근방법으로 정부 정책 정보전달이라는 목적을 매우 적절하게 달성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들도 바뀌게 하는 파급효과도 있다고 생각함.

【구성 및 내용】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자녀, 대한민국이 함께 키워요!'로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 주었음.

김윤주 진행자가 임평순 진행자의 어머니를 전화로 연결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을 듣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과 '누리과정'을 소개했음. 현재 어린 자녀를 두고 일을 하는 여성과 통화를 해 현실성을 높였다면 오늘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임평순이 또 땀>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할머니가 손자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며 부모를 대신해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이용해 보라는 구성이 좋았음. <행정 개그를 아시나요?>는 공무원과 아이들이 출연해 '누리과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혜택을 잘 설명해 주었음.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2. 27. 14:30	시청률	0.000

【총 평】

<유진규 한국적인 마임의 개척자>, <백세시대 생활체육이 답이다>, <2013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이 차례로 이어졌음. 문화계 인사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정부의 문화·체육 정책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인재 육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취재됨으로써 우리가 이미 문화행복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이 유효하게 드러났음.**

전반적으로 정부의 문화·체육 정책을 한발 가깝게 알 수 있는 구성으로 매우 유익하게 다가왔음.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정책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정책설명을 해주는 흐름이 보기 편했음. 특히 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도 참여의지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으로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음.

【구성 및 내용】

<유진규 한국적인 마임의 개척자>편은 국내 1세대 마임연기자 유진규씨가 소개되었음. 자료영상을 통해 마임의 정의와 팬터마임의 개념을 설명해주어 이해가 쉬웠고 깔끔한 화면 구성과 색감이 눈길을 끌었음.

<백세시대 생활체육이 답이다>편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가족형 생활 스포츠 참여 유도정책이 인상적이었음. 좋은 정책을 이미 즐기는 가운데 가족 문화를 가꿔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말그대로 '문화행복시대'를 상징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 가깝게 다가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음.

<2013 창의인재 동반사업>편은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수혜자들을 만나는 흐뭇한 시간이었지만 너무 딱딱하게 접근해 '창의'적인 접근방식 및 표현방식이 아쉬웠음. 소재가 딱딱할수록 접근을 부드럽게 하는 역발상적인 제작방식이 필요함.

프로그램		인문학 열전	
방송일자	2014. 2. 27. 16:05	시청률	0.000

【총 평】

<우리시대 인문학>, <길위의 인문학>, <인문학 에세이> 등 3꼭지로 구성했음.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출연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중심의 인문학'을 자료화면과 내레이션 등 다양한 구성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음.

【구성 및 내용】

<우리시대 인문학>은 송호근 교수가 저술한 '시민의 탄생'에서 발췌한 내용을 각색해서 송호근 교수의 인문학에 대한 생각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돋보였음. <길위의 인문학>은 '직산읍 작은 도서관'과 '신방도서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을 통해 인문학이 실생활에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담아냈음. <인문학 에세이>는 유종호 문화융성위원회 인문특위 위원장의 짧은 인터뷰로 인문학을 잘 정리했음.

【참고사항】

송호근 교수 프로필 자막이 나올 때 송호근 소설가로 나왔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출연자의 경우 하나의 호칭으로 통일하는게 좋을 것 같음. 스튜디오에 첼로 연주자가 포함된 Full Shot을 카메라가 자주 보여주는데 연주자는 방송 시작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연주를 한다는 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연주자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음.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2. 27. 20:00	시청률	0.030

【총 평】

[호텔 셰프 출신의 귀농인]이라는 인물선정 및 [희귀채소 경작]이라는 소재의 독특함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음. 특히, 최종섭씨의 경우, 영화 '위낭소리'에 나오는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점이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었다고 봄. 단, 최종섭씨의 귀농사유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음.

【구성 및 내용】

[호텔 주방]에서부터 [희귀채소 경작 귀농인]으로 연결시킨 구성의 흐름이, 도식적인 귀농이야기보다 한결 참신하면서도 시청자의 시청욕구를 이끌어 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던 것 같음.

특히, '각종 채소를 다루는 셰프'와 '그 재료를 경작해서 공급하는 귀농인'의 연계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귀농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심어주기에 적절했다고 생각됨.

또한, 엔딩부분에서 최종섭씨가 [위낭소리]의 주인공인 부친의 묘앞에서 '귀농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장면도, 시청자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음.

【참고사항】

내레이터가 등장인물을 " ~ 00씨"라고 호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시청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상 나이가 든 출연자들에게 " ~ 00씨"라는 호칭을 하는 것은 자칫 결례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됨.

특히, 귀농다큐 살어리랏다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있는 출연자를 비롯해, 70~80대의 할아버지 연령층에게도 " ~ 00씨"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 ~ 000씨"라고 '성(姓)'을 붙여주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100살의 행복, 100살의 희망		
방송일자	2014. 2. 28. 19:55	시청률	0.091

【총 평】

[최고령 위안부 할머니]라는 인물 및 주제설정이, 3·1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함축하는 의미와 시의성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고 생각됨. 또한, 흑백자료 활용과 女내리이터의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보이스톤도 프로그램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음.

【구성 및 내용】

5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었지만, 1시간 편성의 특집다큐멘터리 못지않은 진한 감동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생각됨. 일본 위안부 피해생존자 55명중 올해 97세를 맞는 김복득할머니와 통영시의 정의비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고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를 돌아보았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전 재산을 통영여고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연은 여고생들과 같은 꽃다운 나이에 짓밟혀야 했던 할머니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는 염원으로 느껴짐.

김복득할머니가 일본군에 속아서 배를 탔던 '통영' 부두에서 시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상]이 건립된 통영시의 공원에서 마무리를 한 영상구성의 상징성이 매우 돋보였음.

프로그램	방방곡곡 국민 행복 리포트		
방송일자	2014. 2. 28. 20:00	시청률	0.061

【총 평】

{방방곡곡 국민행복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의 취지와 정체성에 잘 부합하는 "따뜻하면서도 사람냄새 넘치는 방방곡곡"의 모습을 흥미롭게 잘 담아내었음. 특히, <할매 할배 학교 갑시다>의 경우, 서툴지만 질박한 시골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봄.

【구성 및 내용】

국민행복 리포트는 "할매 할배 학교 갑시다"와 '관현맹인 전통 예술단'으로 구성했고, 행복우체통은 사물놀이 무형문화재 박이식씨와 가야금을 배우는 김경자씨를 소개했음.

<마을>의 경우, {방방곡곡 국민행복 리포트}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될 만큼 주제, 인물, 내용 등이 잘 조화를 이루었음. 특히, 마을 어르신들의 서툴지만 순수함이 묻어나는 詩를 요소요소에 배치한 점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됨.

<사람>의 경우도 시각장애인 이진용씨를 주인공으로, 이진용 씨가 소속된 [관현 맹인전통예술단]의 음악감독인 변종혁씨가 내레이션을 맡음으로써 연계감과 현장감을 배가시킨 점이 돋보였음. <우체통>의 경우 앞의 <사람>과 {국악}이라는 동일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자칫 두 코너 모두의 독창성을 손상시킬 소지도 있었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영상으로 보는 대통령 - 건국대통령 이승만		
방송일자	2014. 3. 1. 17:20	시청률	0.154

【총 평】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에 서다>, <6.25 위기를 극복하다>,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다> 등으로 구성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조명했음.
 <대한민국 건국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이후 민족갈등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조명했고 <6.25 위기를 극복하다>는 전쟁 발발 후 미국과의 외교력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음.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다>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산업국가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에 원조를 요청하는 과정과, 원자력원구소를 설립하고 교육혁명을 도모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음. 그동안 다른 매체에서 조명하지 않은 참신한 접근 방법이었다고 생각됨.

프로그램	KTV 특별기획 국민과 함께한 66년, KTV 국민방송		
방송일자	2014. 3. 2. 13:00	시청률	0.072

【총 평】

KTV 개국 19주년을 맞아 KTV 국민방송의 66년 역사를 짚어보았음. 국립영화제작소의 대한뉴스 제작에서부터 2014년 KTV국민방송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까지 '희망을 주고 행복을 찾는 KTV'의 새로운 변화와 주요기획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프로그램 들을 소개했음.

【구성 및 내용】

1948년 공보처 공보국 영화과 신설로 시작해 1961년 국립 영화제작소를 거쳐 1995년 케이블TV 개국, 2014년 KTV 국민방송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었음. 특히, KTV 국민방송은 단순히 채널 명칭만 바꾼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제작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성이 돋보였음. 시청자와 국민은 간과된 채 KTV 사람들, 대학교수들만 등장한 interviewee가 프로그램의 주소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었음.